

아침 “27년 전 녹음한 정규 2집, 이제야 빛 보네요”

유정연·이영경...‘랜드 오브 모닝 캠프’ 주인공

1994년, 유정연 홀로 필라델피아서 레코딩

여름 아침 콘서트 예정...사실상 첫 단독 콘서트

그들 '아침(Achim)'이 녹음을 하고도 27년간 발표하지 못했던 정규 2집이 마침내 빛을 보았다.

1992년 발매해 대중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서 숨은 명반으로 통하는 ‘랜드 오브 모닝 캠프(Land of Morning Calm)’의 주인공이다.

아침은 선화예중·고와 서울대 음대 기악과 선후배 사이인 유정연·이영경이 결성했다. 이들이 1992년 발매한 1집은 모던한 사운드로, 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서 호평을 들었다. 특히 이 앨범에 실린 세련미가 넘치는 ‘숙녀 예찬’은 전설적인 명곡이다.

최근 발매된 아침의 정규 2집 ‘아침 2-필라델피아 세션 1994’에 실린 8곡도 27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모던하다. 유정연이 홀로 199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레코딩을 마치고서도 미 발매된 곡들은 오랜 세월동안 숙성됐고, 시간의 흔적이 물방울처럼 맺혀 있다.

최근 스톱프뮤직에서 만난 유정연은 “당시 필라델피아는 우울한 기운이 지배적이었”고 돌아왔다. 유정연은 고

모가 살고 있던 그곳에서 두달 동안 동네 주민처럼 지내며, 감성을 스핀처럼 흡수했다. 보통 해외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며 녹음하는 다른 뮤지션들보다, 더 꼼꼼하게 사운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필라델피아의 유서 깊은 스튜디오인 모닝스타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다. 빌리 조엘의 리버 오브 드림스의 베이스를 담당한 제프 리 존슨, 아트 브레키와 재즈 매시저스의 베이스 찰스 웹브로우, 피스 오브 어 드림의 제임스 로이드 등 미국 동부지역의 유명 뮤지션들이 함께 했다. 세계적인 마스터링 엔지니어 바비 하타도 힘을 보탰다.

사실 이번 2집 발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27년 전 녹음까지 마쳤지만, 음반사 사정으로 발매가 무산됐다. 하지만 빛을 봐야 할 곡들은 언젠가 발굴되게 돼 있다.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 사이에서 시티팝이 부상하면서 '90년대 시티팝 주역'으로 통하는 아침 1집이 다시 주목 받았다.

아침은 1집은 결국 LP, CD로 재발매됐고, 각종 음반 사이트에서 베스트셀

러가 됐다. 탄력을 받아 이번 2집 발매로 이어진 것이다.

유정연은 현재 탱고 음악가 안토니오 유(Antonio Yoo)로 활발하게 활약 중인 만큼, 2집 발매에 미련이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마스터 존재도 있고 살았다. 결국 CD 마스터는 사라졌고, 겨우 카세트 테이프 마스터를 찾아 발매하게 됐다.

앨범에는 미리 선공개한 ‘가을빛 추억’, ‘너를 사랑했던걸’, ‘낯선곳으로의 여행’을 포함해 총 8곡이 실렸다. 다양한 스타일, 멜로디의 아련함, 사운드 청명함과 함께 유정연 보컬의 풍성함도 앨범의 완성도를 높여줬다.

마이클 잭슨의 ‘쉬스 아웃 마이 라이프(She's out my life)’ 같은 느낌으로 불러 본 ‘때로는 그대가’, 피시 슬레지의 곡이 원곡으로 마이클 불턴이 불러 유명한 ‘웬 어 맨 러브스 어 우먼(When a man loves a woman)’ 같은 질감을 선사하는 ‘나 네게 원하는 건’ 등이 예다. “곡을 만들 때 ‘이런 느낌이 나는 곡’이라는 걸 같이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인풋이 있어야 그 만큼 아웃풋이 생기는 거잖아요.”

유정연의 부친은 국내 ‘합창 음악의 거장’으로 통하는 지휘자 유병무다. 유정연도 일곱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하지만 그는 팝송에 더 끌렸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못마땅해했다. 그러다 고 3 때 유정연은 자신의 좋아하는 영국의 밴드 ‘퀸’의 ‘보헤미안 랍소디’를 부친에게 들려드렸다.

퀸이 대중에 영향하기보다 밴드의 정체성 찾기에 골몰한 결과물이 ‘보헤미안 랍소디’다. 1975년 발매된 4집 ‘어나이트 앳 디 오페라’에 포함된 ‘보헤미안 랍소디’는 오페라 록을 개척한 6분짜리 대곡이다. 겸녹음을 180차례나 해 웅장함을 만들어냈다. 유정연의 부친은 가만히 듣더니 “이 노래는 좋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양한 음악적 자양분을 쌓은 유정연은 그동안 500여곡을 발표했다. 아침을 결성하기 전부터 이승철, 신승훈, 이상우, 박준희 등 가수들의 작·편곡가로 활동했다.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핑클의 ‘영원’, 장혜진의 ‘내게로’, 헤이의 ‘쥘레트(Je T'aime)’ 등의 히트곡을 만들었다. 김범수의 ‘오래된 사진처럼’, 박효신의 ‘숙녀예찬’, 오마이걸과 핑클의 ‘쥘레트’는 그의 작품을 리메이크한 곡이다.

그러다 2009년 이후 아르헨티나로 건너갔다.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안토니오 유로 아르헨티나, 일본, 유럽을 주 무대로 활약했다. 올해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계의 명연주자들과 함께 레코딩한 탱고 프로젝트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클럽(Buenos Aires Tango Club)’ 음반,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음반을 발매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지난 2019년에 성공적인 내한공연을 했던 아스타 피아졸라 퀸릿과 함께 국내 전국 투어도 예정돼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도, 탱고의 전설 피아졸라의 탄생 100주년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싶어 방역 지침을 지키며 진행할 예정이다. 내한 뮤지션들의 자가 격리 비용까지, 그가 감당한다.

탱고는 오랜 유랑과 모험의 길에서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음악의 피를 혼합해왔다.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시작했다 잠시 활을 놓았고, 탱고 음악을 위해 다시 활을 든 유정연의 음악 인생도 유랑과 모험의 역사다.

“음악도 인생도 돌고 도네요. 아침 2집처럼요.”

있던 BBS불교방송 라디오 ‘밤의 창가서’를 통해 한 시간 동안 라이브를 선보인 것이 아침의 유일한 무대였다.

음악에 대한 열정은 더 있다. 자신의 레이블을 통해 가까운 음악가들의 CD 발매를 도와주는 역할도 거머쥐고 있다.

올해 여름에는 아침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사실상 아침의 첫 단독 콘서트다. 지난 1992년 가객 김광석이 DJ를 맡

ITZY, 서프라이즈 팬송 ‘민지(MITZY)’ 20일 전세계 발매

첫 번째 ‘FAN PARTY LIVE’(팬 파티 라이브)서 최초 공개

그들 'ITZY'(이지)가 전 세계 팬들을 위한 노래 ‘민지(MITZY)’를 발표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4일 0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서프라이즈 팬송 ‘민지’의 발매 안내 포스터를 공개했다.

‘민지’는 ITZY가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담아 노래한 신곡으로 20일 오후 6시국내의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ITZY 공식 팬덤 ‘민지(MIDZY)’와 같은 이름인 이번 신곡에는 예지, 리아, 류진, 채령, 유나 등 멤버들을 진심이 담겼다.

소속사는 이 곡에 대해 팀이 존재하

는 이유가 곧 팬들의 굳은 믿음 덕분이라는 애뜻한 메시지를 노래에 실어 깊은 팬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이지과 민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한 노랫말로 감동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발매 당일 오후 4시에 개최 예정인 첫 번째 ‘FAN PARTY LIVE’(팬 파티 라이브)에서 이번 신곡이 최초 공개된다.

이번 ‘FAN PARTY LIVE’는 ITZY의 공식 팬클럽 1기를 대상으로 네이버 V LIVE에서 생중계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팬들과 추억을 만들 예정이다.

ITZY는 공식 팬클럽을 모집 중이다. ‘민지’ 1기 모집은 네이버 V LIVE



팬십 페이지에서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진행된다.

샤이니, 다음달 4일 3년 만에 단독 콘서트

티켓 예매, 18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V LIVE+서 가능

그들 '샤이니'(SHINee)가 3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1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2일 오후 3시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의 비온드 라이브(Beyond LIVE) 채널에서 ‘비온드 라이브 - 샤이니 : 샤이니 월드’를 생중계한다.

멤버들이 군 복무를 한 샤이니의 단독 콘서트는 지난 2018년 2월 일본에서 개최된 ‘샤이니 월드 더 베스트 2018 ~ 프림 나우 온~’ 이후

처음이다. 샤이니의 첫 온라인 콘서트이기도 하다.

샤이니 역대 히트곡부터 최근 발매한 정규 7집 ‘돈트 콜 미(Don't Call Me)’ 수록곡들을 들려준다. 티켓 예매는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V LIVE+에서 가능하다.

한편, 샤이니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돈트 콜 미’로 국내 음원 및 음반 차트 1위, 음악 방송 6관왕,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전 세계 47개 지역 1위, 일본 오리콘 주간 디지털 앨범 차트 1위, 중국 QQ뮤직과 쿠



위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 등 각종 차트를 휩쓸었다.

‘미스터트롯’·‘싱어게인’ 서울 콘서트, 다음달로 연기



‘내일은 미스터트롯’ 톱6 전국투어 서울 콘서트의 ‘싱어게인’ 톱10 전국

투어 서울 콘서트가 4월로 연기됐다. 12일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

기 조정안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조치가 3월28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21일까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D DOME)에서 공연 예정이던 ‘미스터트롯’ 톱6 서울 콘서트는 4월22일부터 25일까지로 연기됐다.

19일부터 21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 예정이던 ‘싱어게인’ 톱10 서울 콘서트는 4월16일부터 18일까지로 미뤄졌다. 두 공연 모두 연기 전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연회차와 좌석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 배송받은 티켓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다.

왁스, 새 싱글 ‘반대로 인 거야’, 오는 17일 발매

1년 만에 컴백

가수 왁스가 신곡으로 1년 만에 컴백한다.

소속사 언투스엔터테인먼트는 12일 “왁스가 오는 1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반대로 인 거야’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신곡 ‘반대로 인 거야’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싱글 ‘집으로 데려다줘’ 이후 왁스가 1년 만에 공개하는 앨범이다.

연인의 이별 그리고 재회의 순간, 밀어내지 못하는 마음을 담은 감성 발라드곡이다.

왁스는 첫 소절부터 특유의 음색과 풍부한 감성 표현으로 곡을 가득 채웠고, 여기에 감미롭고 서정적인 멜로디



가 어우러져 봄 감성을 전할 예정이다.

지난해 SBS 플러스 ‘내게 ON 트롯’에 출연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 왁스

는 최근 KBS 2TV ‘오 삼광빌라’,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사’ 등 인기 드라마 OST에도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지현, ‘펜트하우스’ 효과?...“자고 일어나니 100만”

‘펜트하우스2’에 출연 중인 배우 한지현이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만명 돌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지현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드레스를 입은 사진과 함께 100만이라고 적은 케시물을 올렸다.

그는 “‘펜트하우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 팬분들 정말 감사하다”며 “아직 신인이고 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사랑과 관심을 주시니 정말 열렬하고 놀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그 기대와 사랑에 만족할만한 사람인가 싶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연기도 더 노력하고 배우서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우와 자고 일어나니 100만이다”라고 기뻐했다.

이와 함께 한지현은 지난해 12월 17일 당시 10만명에서 이날 100만명까지 팔로워 증가 추세를 덧붙였다.

홍현희, ‘학폭 주장’ 누리꾼 고소 취하

“직접 만나 사과 받았다”

개그우먼 홍현희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에게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13일 소속사 블리스엔터테인먼트는 “현희는 지난 11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K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

수했다”며 “K씨는 대면하지는 홍현희씨의 주장에 12일 연락했으며 기억의 오류가 있었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트판에 게재된 글들은 현재 K씨가 모두 내린 상태”라면서 “이에 홍현희는 K씨를 만나 사과받고 고소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현희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개그우먼 홍현희 학창 시절 안 찢리니?’라는 글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그러자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홍현희 학교 폭력 폭로 글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글의 작성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런 글을 써왔다”고 반박했다.